

여객기로 화물수송 '발상전환'... 코로나19에 빛난 리더십

뉴메트로 5주년 기업과 함께 한 5년, 함께 할 50년

4부. P코로나시대, 혁신의 전도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올해 들어 확산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업계 1위 국적사인 대한항공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고,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국제선 노선의 운항이 잠정 중단됐기 때문이다. 한 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세를 보여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체제 아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힘을 합쳐 돌파구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조원태 회장은 지난해 4월 부친인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폐 질환으로 갑작스레 별세하면서 이후 한진그룹을 이끌게 됐다. 1969년 창립한 대한항공이 50주년을 맞은 지난해 한진그룹 3세대인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을 넘겨받게 된 것이다.

조원태 회장은 취임 이후 사내 유연한 조직 문화를 구축했다고 평가받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5월 넥타이를 매지 않고 일하는 '노타이' 근무를 시행한 데 이어 현재 완전 복장 자율화 제도를

작년 조양호 회장 별세 후 경영권 자율복장, 점심시간 자율선택 등 혁신경영으로 임직원에 신뢰 얻어 '아시아나 인수' 산은 제안에 수락 최종 성사면 글로벌 10위 경쟁력

도입했다. 또, 직원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1시간의 점심시간을 갖는 자율 선택제와 함께 오후 5시 30분이 되면 정시 퇴근 안내방송 및 퇴근을 알리는 팝업 메시지를 PC에 표출하는 시스템을 실시 중이다.

이 같은 혁신 경영에 박차를 가하며 조원태 회장은 임직원의 신뢰를 얻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주주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으나 임직원이 조 회장을 지지하면서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완승'을 거둔 바 있다.

당시 주총에서는 주요 쟁점이었던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가결됐다. 또한 주주연합의 사내 및 사외이사 후보가 모두 부결된 것과 달리, 한진칼의 추천 후보는 전부 선임됐다. 임직원의 지지에 따라 조 회장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 여파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자, 조 회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한 지구책의 일환으로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하지는 '발상의 전환' 카드도 제시했다. 코로나로 인해 여객을 실어나르지 못하며 여객기가 운휴하자,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여객기에 화물만 실어 운항하지는 역발상을 낸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13일 기준 대한항공은 총

124개 노선 중 89개를 중단한 상태였다. 또한 수요 감소로 인한 감편으로 국제선 여객 운항 횟수도 평시 대비 86% 줄었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임원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휴 여객기의 화물칸을 이용해 화물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공급선을 다양화하는 한편 주기로 등 비용까지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여객기의 화물기화를 통한 공급 증대와 화물 시장의 호조세 덕에 코로나 여파에도 두 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 대한항공은 지난 2분기와 3분기 각각 영업이익 1485억원, 76억원을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하고, 다른 항공사들이 여섯 분기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상

이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조 회장은 국내 항공업계가 사상 최악의 업황을 겪자, 최근 아시아나항공 인수라는 산업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수송으로 국가에 기여한다'는 한진그룹의 창업이념 아래, 국내 항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딜이 성사될 경우, 대한항공은 글로벌 항공산업 내 10위 수준의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은 아시아나 인수와 관련해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도약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에 제주항공 '낙동강 오리알'

한진그룹, LCC 3사 단계적 통합 3사 통합엔 시장 점유율 40% 달해 업계 구조재편 등 제주항공에 타격 메가 LCC 탄생엔 업계 1위→2위로



제주항공 항공기.

당초 아시아나와 이스타항공 M&A(인수 합병)에 뛰어 들었던 제주항공이 외려 LCC 업계 1위 자리를 내주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항공은 이미 실사단 구성을 마무리했고, 내주부터 약 두 달간 아시아나에 대한 서류 및 현장 등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인수 절차가 본격화함에 따라 향후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LCC(저비용항공사)도 통합될 예정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16일 "한진 측에서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등 3사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비용항공사 3사가 통합할 경우, LCC 업계에 구조재편 등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여객수 기준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의 LCC 시장 점유율은 약 40%를 웃돌기 때문이다. 다른 저비용항공사 대비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우세한 '메가 LCC'의 탄생으로, 다른 항공사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경쟁력을 높여 왔던 제주항공도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점이다. 제주항공은 앞서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 양사의 인수전에 전부 참여했다. 동종업계간 M&A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게 주요 취지였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아시아나 M&A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있어 HDC 현대산업개발에 밀렸다. 이스타항공과의 딜은 제주항공이 지난 7월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선언하며 무산됐다. M&A를 통해 LCC 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하려 했던 당초 제주항공의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것이다.

제주항공은 메가 LCC가 공식 출범하게 될 경우, 시장 점유율 약 29%(지난해 기준)로 업계 2위로 주저앉게 된다. 또한 올해 들어 확산한 코로나19로 여섯 분기 연속 적자를 낸 만큼, 메가 LCC의 탄생은 제주항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수지 기자

외교정책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외교센터'를 양재 외교타운(1층)에 추가 개소하였습니다. ('20. 10. 19.~)

우리 국민이 참여하는 외교 정책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장소: 양재 국민외교타운 내 외교타운 건물 1층
참고: 외교부 홈페이지 및 국민외교 모바일앱 등 공지 예정



(양재) 국민외교센터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12번출구 (도보 3분)
버스노선 간선버스: 400, 405A, 406
지선버스: (마을서초17, 마을서초21)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1층 국민외교센터

SNS에서 국민외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